[문항 1] (가)를 참고하여, 본부장이 배석자들을 데리고 협상장을 떠난 이유를 설명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300~350자 / 20점)

(가)

'협상 가능 영역'은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영역이다. 협상 가능 영역의 바깥선은 '협상 포기 한계선'이다. 만약 협상 가능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쪽 또는 양쪽이 협상 포기 한계선을 바꿔야 협상 가능 영역이 존재하게 되고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협상 가능 영역이 존재하더라도 한쪽이 이 선을 넘어서는 요구를 꺾지 않는다면 다른 쪽은 협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나)

기자 : 협상에서 고도의 기술과 전략이 필요한 거죠?

본부장 : 협상에는 여러 가지 기술과 전략도 필요하지만 우선 신뢰를 지키는 게 기본입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 인내의 한계까지 와서 고함을 지르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렇게 연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횟수가 잦아지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기자 : 작년 4월 미국에서 쇠고기 추가협상 도중 귀국하겠다며 협상장을 떠났지요. 그건 협상 전략에 속합니까?

본부장 : 국내 상황은 절박했는데 상대편이 쉽게 설득이 안 됐어요. 자리를 뜨면서 배석한 대표단 다섯 명에게도 따라 나오라고 했죠. 제 좌절의 표시였습니다. 그때 상대편도 '저 정도면 연극이 아니다. 이게 한국 측의 한계선이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기자 : 결과적으로 우리 요구가 관철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빈손으로 귀국할 생각이었습니까?

본부장 : 사정이 어떻든 상업적 이익은 미국 측이 보는 것이거든요. 저쪽은 팔겠다는 입장이니까요. '협상으로 시간을 끄는 만큼 쇠고기를 팔지 못하면 손해는 저쪽에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미국 측이 기회비용을 계산한다면 협상을 빨리 끝맺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보따리를 싸도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섰어요.

– 2009년 9월 21일자 일간신문 기사

[문항 2] (가)의 주장을 (나)와 (다)를 통해 비판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시장 경제 체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 개인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기업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개인은 소비를 통한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업은 공급을 통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수요와 공급에 관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이득을 가져온다.

(나)

남산 아래 묵적동에 살던 허생은 십 년을 기약하고 공부를 시작하지만 돈을 벌어오라는 아내의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서 한양 최고의 부자인 변 씨를 찾아가 만 냥을 빌린다. 허생은 곧바로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드나드는 길목인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대추, 밤, 감, 배 등의 과일들을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사들이는 바람에 백성들부터 양반에 이르기까지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가 지나자 허생에게 과일을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허생은 상품의 공급자로서 많은 이득을 얻었지만 이로 인한 고통은 온전히 이 물건들을 필요로 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다)

통행이 자유로운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은 비용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돈을 낸 사람만 이용하게 할 수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제공하는 혜택이나 효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국가에서 경찰을 조직하여 치안 업무를 맡기면 누구나 방범 혜택을 받는다. 이때 누가 더 경찰의 보호를 받는지 가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사용한 만큼 부담하기 어렵고 사용을 제한하기도 어려운 서비스의 경우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한다. 시장에 맡길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제대로 된 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유지도 어렵게 된다. 더욱이 이들 서비스는 사회 전체적으로 반드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문항 3] (가)와 (나)의 관점에 근거하여 (다)의 현상을 설명하고 비판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과학은 원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인간이 과학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컴퓨터,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생산 현장에서 인간을 기계의 부품처럼 여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학 기술은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치 추적 시스템, 감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

(나)

《대량살상 수학무기》의 저자, 캐시 오닐은 나쁜 알고리즘의 조건으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꼽는다. '불투명성'이란 어떤 알고리즘에 자신이 포함되는 것을 당사자가 알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비공개되는 경우를 말한다. '불공정성'은 어떤 정보가 다른 정보와 연결되면서 불공정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 상태가 나쁘고 범죄 발생률이 높은 동네에 살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알고리즘에 반영할 경우, 이들은 대출심사에서 거부되거나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작은 범죄에도 체포되거나 더 긴 형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알고리즘을 통한 데이터 처리 과정은 과거를 반영할 뿐 미래를 창조하지 않는다. 미래를 창조하려면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알고리즘에 포함시키고,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을 따르는 빅데이터 모형을 창조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익보다 공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력서를 걸러내는 데 자동심사 시스템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이력서의 72%는 알고리즘에 의해 걸러져서 인간의 눈으로 심사받을 기회조차 없다. 시카고대와 MIT 공동연구진은 1,300여 개 회사에 5,000장의 가짜 이력서를 보내는 실험을 했다. 이력서의 절반은 '에밀리 월시'나 '브렌든 베이커' 같은 전형적인 백인 이름을, 나머지 절반은 '라키샤 워싱턴'이나 '자말 존스' 같은 전형적인 흑인 이름을 사용했다. 백인 이름을 사용했을 때 이력서에 대한 반응률이 50%p나 더 높았다.

영국의 세인트조지 의과대학은 입학 사정에 자동시스템을 도입했다. 빠르게 처리하고 외부 청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자동분류 알고리즘을 활용한 것이다. 이 알고리즘은 수십 년간 쌓인 입학정보를 이용했는데, 여기에는 과거에 영어 사용 미숙으로 탈락한 지원자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세인트조지 의대는 이러한 정보를 지역에 따라 코드화했다. 이로 인해 특정 주소지, 출생지의 지원자에게는 자동적으로 낮은 점수가 부여됐고, 결과적으로 주로 아프리카, 파키스탄 이민자들은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다.

출제원칙

1 출제 방침

(1) 고교 교과서에 기반한 고교 과정 내의 문제를 출제한다.

(2) 둘 이상의 지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3) 단순 암기나 도식적인 이해를 넘어선 제시문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4) 우리의 삶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2 출제 유형

(1) 지문제시형 문제를 출제한다.

(2) 통합교과형 문제를 출제한다.

(3) 약 90분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4) 총 세 문항의 유형과 분량은 다음과 같다.

- 문항 1 : 내용 파악 후, 비판적 사고 능력과 논술 능력(띄어쓰기 포함 300~350자 / 20점)
- 문항 2 : 내용 파악 후, 비판적 사고 능력과 논술 능력(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 문항 3 : 내용 파악 후, 비판적 사고 능력과 논술 능력(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채점기준 [문항 1]

1 기본 사항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4)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2 답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채점 기준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문장부호의 일부 및 교정부호는 온라인 모의논술고사의 답안 입력 시스템상 표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채점함.

(2) 분량

① 400자 이상 : 2등급 감점

② 350자 초과~4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250자~3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200자~250자 미만 : 2등급 감점

⑤ 200자 미만 : F

[내용]

(1) 문항 취지 분석

가. 제시된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능력을 평가한다.

나. 글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능력을 평가한다.

다.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활용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출처

가. 「국어」, 교학사, 145, 150쪽을 재구성

(3) 문제 해설

가. (가)는 '협상 가능 영역', '협상 포기 한계선'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협상의 진행과 결렬의 원인을 잘 분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나. (나)는 한미 간의 쇠고기 추가협상 도중에 한국측 대표단이 자리를 뜨게 된 과정을 본부장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본부장은 한미 간의 협상 가능 영역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한국 측의 협상 포기 한계선을 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리를 떴으며 미국 측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한 행동이 협상의 결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말한다.

다.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본부장이 배석자들을 데리고 협상장을 떠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 (가)에 제시된 '협상 가능 영역', '협상 포기 한계선'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협상 도중에 한국측 대표단이 자리를 뜬 것은 협상 가능 영역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 그렇지만 본부장이 협상의 결렬을 원하거나 예상한 것은 아니라는 것, 자리를 뜸으로써 미국 측의 요구가 한국 측의 협상 포기 한계선을 넘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상황으로 볼 때 결국은 미국 측이 협상 포기 한계선을 바꿈으로써 협상 가능 영역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답안에 포함해야 한다.

(4) 채점 방향

가. (가)에서 '협상 가능 영역', '협상 포기 한계선'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들이 협상의 진행과 결렬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개념임을 파악했는가

나. (나)에서 본부장이 설명하고 있는 협상의 상황을 '협상 가능 영역', '협상 포기 한계선'의 개념을 활용하여 파악했는가

다. (나)에서 본부장이 자리를 뜨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를 '협상 가능 영역', '협상 포기 한계선'의 개념을 활용하여 잘 설명했는가

(5) 채점 포인트

가. (가)의 설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나. (나)에 대한 독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1~2등급 감점

다. (가)의 개념들을 활용해 (나)의 본부장의 판단과 행동을 잘 설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3 예시답안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우리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일어난 것은 협상 가능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하려면 우리 측이나 미국 측이 협상 포기 한계선을 바꿔야 한다. 본부장은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되면 미국 측의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미국 측이 합의를 더 절박하게 원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측의 상황이 정말 그렇다면 우리 측이 협상 포기 한계선을 바꿀 수 없음을 보여주어 미국 측이 협상 포기 한계선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압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본부장은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듯이 배석자들을 데리고 자리를 뜬 것이다. (323자)

채점기준 [문항 2]

1 기본 사항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4)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2 답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채점 기준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문장부호의 일부 및 교정부호는 온라인 모의논술고사의 답안 입력 시스템상 표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채점함.

(2) 분량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⑤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⑥ 350자 미만 : F

[내용]

(1) 문항 취지 분석

가. 글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능력을 평가한다.

나. 제시된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능력을 평가한다.

다.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활용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출처

가. 「경제」, 천재교육, 32쪽을 재구성

나. 「국어」, 천재교육, 63–66쪽을 재구성

다. 「통합사회」, 지학사, 144쪽을 재구성

(3) 문제 해설

가. (가)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한 수요와 공급이 사회 전체에 이득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나. (나)에서는 '허생'이 시장에 공급되는 과일을 독점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이득을 가져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 (다)에서는 개인에게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이윤을 줄 수 없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시장 경제 체제의 불완전성을 보여준다.

(4) 채점 방향

가. 제시문 (가)에서 시장 경제 체제가 개인의 수요와 기업의 공급에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나. 제시문 (나)와 (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의 주장을 적절히 비판하고 있는가.

(5) 채점 포인트

가. 제시문 (가)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나. (나)와 (다)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1~2등급 감점

다. (나)와 (다)의 분석을 통해 (가)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3 예시답안

(가)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개인은 수요를 통해 만족감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고, 기업은 공급을 통해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에서 허생이 시장에 공급되는 물건을 독점함으로써 자신의 이윤만 극대화하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 (다)에서는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거리의 가로등이나 경찰의 치안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누리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한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공급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시장 경제 체제가 적절히 작동했다고 할 수 없다. (나)와 (다)를 볼 때 (가)의 주장과 달리 시장 경제 체제가 항상 사회 전체의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6자)

채점기준 [문항 3]

1 기본 사항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4)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2 답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채점 기준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문장부호의 일부 및 교정부호는 온라인 모의논술고사의 답안 입력 시스템상 표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채점함.

(2) 분량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④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⑤ 350자 미만 : F

[내용]

(1) 문항 취지 분석

가. 제시된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능력을 평가한다.

나. 글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능력을 평가한다.

다.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활용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라.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출처

가. 「생활과윤리」, 미래앤, 115–117쪽을 재구성

나. 한국경제신문, 「두 얼굴의 알고리즘... 감사 통한 투명성 확보 필요(20.12.28)」 재구성

다. 매경프리미엄,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 던지는 레드카드(17.12.19)」 재구성

(3) 문제 해설

가. (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다.

나. (나)는 알고리즘의 문제점으로 '불투명성', '불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과학기술이 인간의 윤리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발전돼야 함을 설명한다.

다. (다)는 미국 기업과 영국 기업의 사례를 통해 불투명한 알고리즘의 사례와 알고리즘 사용에 따른 불공정한 결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설명한 (가)의 문항과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한 (나)의 문항에 근거해 (다)에 제시된 2가지 사례를 이해하고, 해당 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채점 방향

가. (가)에서 과학 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나. (나)에서 나쁜 알고리즘의 2가지 조건(불투명성, 불공정성)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은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인간의 윤리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다. (다)에서 나쁜 알고리즘의 개념에 근거해 미국과 영국에서 나타난 알고리즘의 부정적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했는가?

(5) 채점 포인트

가. (가)의 설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나. (나)의 설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다. (다)에 대한 독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1~2등급 감점

라. (가)와 (나)의 개념들을 활용해 (다)의 미국 기업과 영국 대학의 사례를 설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3 예시답안

이력서 심사 알고리즘과 입학 사정 알고리즘이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당사자들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또 과거의 데이터에 근거한 알고리즘에 의해 단순히 흑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는 입사 면접에서 흑인을 차별해 탈락시켰던 과거의 데이터와 입학 사정 때 특정 지역 사람들이 영어 사용 미숙으로 탈락했던 과거의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가 알고리즘의 내용을 알 수 없고, 불공정했던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에 의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은 나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원래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결과가 만들어졌다. 알고리즘은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인간의 편견이 프로그램화되기 때문에 절대 완벽하거나 공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66자)